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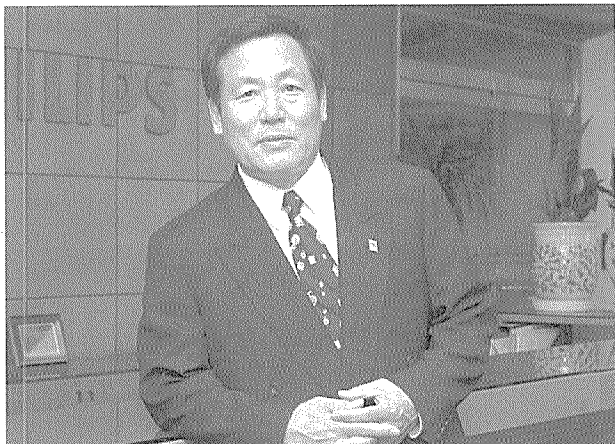
Cover Story

(주)필립스전자 대표이사

신박제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리더”

대담 / 정재관 기자



신 박 제 (申博濟)
(주)필립스전자 대표이사 사장

- 지난 한해를 돌아 본 소감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가전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도체, 의료장비, 조명 부문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전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경기 침체의 바닥을 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 해 말에, 국내 자동차조명 업계 1위를 고수해 온 필립스 합작회사인 송원자동차조명(주)를 흡수 합병하여, 필립스 코리아의 성장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합병과 함께 자동차조명부문의 아시아 지역 물류센터를 국내에 유치했던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귀사의 경영성과와 전망은?

일반 소비자 가전이 내수 침체로 어려웠습니다만, 반도체, 의료 장비, 특수조명 등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해 주어서 전체적으로는 한자리 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이고, 반도체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두 자리 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새해 전자산업 경기를 전망해 본다면?

전체 산업 차원에서 미국 경기의 호전과 함께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시장 창출과 전자 및 IT 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에 힘입어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디지털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자와 IT의 결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라, 이동통신 기반 반도체 솔루션 및 플랫

폼, LCD 및 PDP 등 플랫 디스플레이 장치 산업, TV와 PC를 통합한 무선 네트워킹 산업 등이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에서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의 도전은 새해 우리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중국은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평균 9%의 성장율을 기록하며 오는 2020년에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나 홀로' 양상을 띄기 보다는 모든 선진 자본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와인 냉장고의 성공에 이어 세탁기, TV, 오디오 등 백색가전과 일반 AV가전에 이르기까지 점차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고품질 프리미엄 가전 영역에도 진출할 예정이어서 가격과 품질 양면에 걸쳐 고전이 예상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적인 솔루션이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가급 통신이 가능한 오늘날,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의 수요가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최근 국내 전자업계와 통신업계가 홈 네트워킹의 본격 개화를 위해 제휴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필립스 또한 가정 어느 곳에서나 각종 디지털 기기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구현에 앞장 선 데 이어, 이동 중 일지라도 정보 접근이 용이한 '커넥티드 플래닛(Connected Planet)'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 새해 경영방침은?

올해는 각 사업부문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시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가전, 소형가전, 조명, 반도체, 의료장비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통해 확립된 브랜드 파워를 더욱 굳건히 하고, 거래선 발굴, 제품 개발, 물류, 유통, 마케팅 등 전사적 자원의 통합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 필립스의 첨단 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선 AV가전 부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체험 영역을 확대하여 디지털 리더십을 견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화질 플랫 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해 모든 TV 모델을 HD급으로 구성한 데 이어, 대화면 LCD TV와 모니터를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유럽영상음향협회(EISA)로부터 2년 연속 '올 해

의 TV'에 선정되도록 이끈 200만 화소의 픽셀 플러스(Pixel Plus) 기술 채용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장, 전송, 편집에 대한 수요 급증에 부응하여 휴대형 디지털 복합제품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캠코더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통합한 초소형 키 링 시리즈, 기가급 대용량 하드 디스크로 활용할 수 있는 오디오 주크박스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소형가전 부문에서는 생활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의 음파칫솔 소니케어를 필두로, 세계 최초의 폴리레드(Poly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필리셰이브 센소텍 전기면도기와 커피메이커, 토스터 등 고품격 주방용품 에센스 시리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명 부문에 있어서도 고화질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UHP램프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과 조명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명품 조명 마스터 컬렉션(MASTER Collection)으로 모든 제품군을 교체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조명 분야에서는 아태지역 물류센터의 거점으로서 차량용 고품질 조명제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물론, 수출 신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의료장비 등 프로페셔널 부문에서는 디지털 통합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 및 제품을 확대 공급할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미디어 구현에 필수적인 이동통신용 IC로부터, 디지털 TV, MP3 플레이어 등 각종 디지털 A/V 기기의 기반 플랫폼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첨단 반도체 넥스페리아(Nexperia), LCD 드라이버 IC, 그리고 더욱 간편하고 정확한 의료 진단장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업계와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올해 경영에서 가장 중점을 둘 사항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마케팅'과 '기술력'의 조합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선결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의 첨단 제품 및 솔루션을 적기에 공급하고,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한 본사와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디지털 컨버전스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40인치 이상 대화면 LCD TV와 같이 시장 선도력이 높은 제품의 경우, '마케팅'과 '기술력'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기반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둘 방침입니다.

-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테크놀러지, 헬스케어, 라이프 스타일 이 세 영역에서 필립스의 브랜드를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 금년에 특별히 전략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필립스가 전개하는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일관하여 핵심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가전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을 더욱 심화시킬 방침입니다. 대화면 LCD TV 및 200만 화소의 고화질 '픽셀 플러스(Pixel Plus)' 기술, 음파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음파칫솔 소니케어(Sonicare), 영상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으로 각광받는 UHP 램프 등 실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가전을 필두로, 전사적 차원에서 통합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실적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사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필립스 코리아가 전개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또한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니 만큼, 비인기 종목이면서도 국위선양에 앞장서 온 하키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상의 경영성과보다는 효율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 금년 R&D 투자계획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군요. 